

【논문】

對明·淸 외교를 위한 조선 사역원의 중국어 교육과 譯官 양성

김준영*

차례

- I. 들어가며
- II. 사역원의 생도 입학제도와 처우
- III. 사역원의 중국어 교육 방법
- IV. 사역원의 역관 관리 방안
- V. 나가며

국문초록

조선시대의 중국어 교육은 교육제도, 교육관리, 교수법, 역관 양성, 교재 편찬 등 다방면에서 비교적 완전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중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는 조선시대의 중국어 교육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외국어 교육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조선시대 司譯院의 운영 기제를 중심으로 사역원의 생도 선발, 교육 방법, 역관 관리 방안 등을 연구한다. 사역원에서 시행된 교육 방법으로는 조기 교육과 현지 체험 학습이 있었다. 또한, 정확한 중국어 발음 구사를 중시하였으며, 사역원 내에서 모국어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도 실시하였다. 동시에 역관과 생도의 회화 실력 향상을 위해 회화 전문반인 偶語廳을 설립하는 노력도 병행하였다. 그리고 역관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유학과 역사를 포함한 문화 교육도 중시하였다.

역관 및 생도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는 출근(출석) 관리제도(원점법), 누계식 성적제도, 상벌제도 등이 시행되었다. 이처럼 조선시대 사역원은 역관 양성 기관으로서 생도 선발, 교육 방법, 관리 방안 등 비교적 완전한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체계를 바탕으로 500년 동안 수많은 역관을 배출하여 양국 간 교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사역원의 중국어 교육방식은 현대 외국어 교육 방식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 향후 외국어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사역원, 조선, 중국어 교육, 역관, 대중 외교

I. 들어가며

고금을 막론하고 일국의 통치자는 모름지기 국가의 존속과 安寧을 위해 외교에 힘써야 했다. 조선 역시 건국 초부터 주변국과의 원활한 소통 및 우호적 관계 수립을 위해 司譯院을 설립해 譯官을 양성하였다.¹⁾ 특히 건국 초부터 대명 사대 외교를 추구해 온 조선은, 명나라와의 경색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어에 능통한 역관들이 다수 필요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맞춰 조선시대에는 중국어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재가 개발되었고, 교육 프로그램 또한 마련되었다. 조선의 중국어 교육 방법은 현대 외국어 교육 방법에도 참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의 꾸준한 관심이 이어져왔다.

조선시대 중국어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老乞大』, 『朴通事』, 『訓世評話』 등 교재를 분석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²⁾ 또한, 역관을 선발하는 譯科

1) 조선시대 司譯院의 전신은 고려 말 1276년(충렬왕 2)에 설립된 通文館이다. 이후 通文館은 공양왕 3년(1391)에 漢文都監으로 개칭되었다가 조선 건국 초인 1393년(태조 2)에 사역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사역원은 1894년 갑오경장 때까지 약 500년간 조선의 외교에 필요한 역관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존속하였다.

2) 임동석의 「朝鮮時代 外國語 教育에 對한 一考」(『學術志』 33, 1989)는 조선시대 외국어 교육의 역사적 연원을 정리하고, 고려시대에 외국어 교육이 활발했던 이유와 당시의 역학 기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사역원의 직제 및 사역원에서 사용한 교재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고광일의 「朝鮮時代 中國語 教育 研究」(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는 사역원에서 중국어 교육을 위해 사용한 교재를 회화류, 음서류, 고전류로 분류하여 소개하였다. 金基石의 「韓國漢語教育史論綱」(『東疆學刊』 21, 2004)과 「韓國李朝時期的漢語教育及其特點」(『漢語學習』 5, 2005)은 조선시대 중국어 교육 기구와 교재를 분석하였다. 朴京淑의 「試論韓國朝鮮時代的漢語教學」(北京語言大學 석사학위 논문, 2000)

와 사역원에서 수행한 각종 시험 제도 등 조선의 譯學 정책에 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³⁾ 그러나 사역원에서 어떠한 교육 방법과 제도를 활용하여 생도와 역관의 중국어 교육에 적용했는지, 생도와 역관의 중국어 구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고는 이상 선행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 『通文館志』 이외에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함께 분석하여 사역원의 중국어 교육과 역관 양성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선 통치자의 인식은 어떠한지 함께 살펴 조선시대 중국어 교육의 위상을 함께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사역원의 생도 입학제도와 처우

사역원에서 역관을 양성하는 분야는 漢學·蒙學·倭學·女眞學(淸學)의 四學으로 구성되었다. 이 사학은 언어적으로 보면,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 여진어(만주어)의 네 가지 언어를 교육하는 것으로 당시 조선의 주요 외교관계 및 대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사역원에 입학하는 생도는 총 80명이었고, 각 학문 분과별 漢學生徒 35명, 蒙學生徒 10명, 倭學生徒 15명, 女眞學(淸學)生徒 20명이 배치되었다. 이상 사역원의 생도를 교육하는 教授와 訓導는 사역원 설립 초기에는 漢學教授 3명과 蒙學教授 1명으로 구성되었다가 점차 교수의 명액 전체를 한학교수로 한정하

은 조선시대에 유행한 중국어 교재를 다루며, 각 교재가 함축하는 중국어 교육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 3) 정광·양오진의 「朝鮮時代の 中國語 教育과 그 評價-朝鮮 英祖 46년(1770), 47년(1771)에 施行한 譯科 漢學 初試, 覆試, 試券을 중심으로(『인문과학연구』 9, 2005)는 영조대에 시행된 譯科 시험지를 분석하여 조선 중기 중국어 교육과 평가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董明의 「明代朝鮮人的 漢語學習」(『北京師範大學學報』, 1999)은 조선에서 중국어 교육을 중시한 배경과 이에 따른 사역원 설립 및 역할과 시행에 대해 다루었다. 烏雲高娃의 「14-18世紀東亞大陸的“譯學”機構」(『黑龍江民族叢刊』 3, 2003)는 명대 四夷館과 조선의 司譯院을 비교하여 두 기관의 성격, 임무, 학제, 교학 내용 등을 정리하였다.

였다.⁴⁾ 그리고 訓導 10명 중 4명이 한학훈도로 배정되었다. 즉, 사역원에서 배정된 생도의 숫자와 교수자의 숫자를 종합해 보면, 조선이 중국어 교육과 對中 외교를 담당할 譯官의 양성에 상당한 공을 들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역원의 생도가 될 수 있는 대상과 이들의 입학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먼저 『태조실록』에 수록된 기사에 따르면, 조선 초기에는 사역원의 생도로 선발되는 대상을 良家子弟로만 규정하였다. 즉 그 대상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아 선발 대상이 어떠한지 알기 어렵다.⁵⁾ 이 같은 사역원 입학생에 대한 규정은 1430년(세종 12)의 기사에 다시 등장한다. 본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사역원에 입학 가능한 대상을 향교의 생도와 良家子弟로 명시하였다. 이 기록은 『태조실록』의 기록보다 대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지만, 양가자제의 범위가 서열(庶孽)까지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점이 남아 있다.⁶⁾

이처럼 조선이 사역원의 생도로 선발하고자 한 대상이 누구였는지는 세종대까지의 기록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건국 초기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사역원 선발에 구체적인 신분적 한계를 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⁷⁾ 이상 사역원 입학 대상에 관한 의문이 풀리는 시기는 조선 성종대로 실록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남아 있다.

本曹에서 內醫院·典醫監·惠民署의 上言에 의거해 아뢰기를 “사역원·觀象監·典醫監은 곧 국가의 가장 요긴한 業務를 행하기 때문에 모름지기 소속된 사람을 흥기시켜 專業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제 賤妾의 자손들도 許屬하게 하고 있어서, 그 동료들이 그들과 같이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 그 소임을 좋아하지 아니하니, 이는 국가에서 獎勵하는 취지에 방해가 되는 듯합니다. 위 項의 三司는 正三品의 衙門으

4) 『태조실록』 권6, 태조 3년 11월 19일.

5) 『태조실록』 권4, 태조 2년 10월 27일.

6) 『세종실록』 권49, 세종 12년 8월 29일.

7) 실록 기록에 따르면, 사역원의 각 학문 분과 중 생도들의 선호도가 낮은 학과는 생도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토로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가령 倭學의 경우, 업무에 비해 처우가 낮아 학생들이 입학할 기피하여 절업에 이를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또한, 역과 시험에도 사람들이 응시하지 않는 등 기피 현상이 만연하다고 지적하였다(『세조실록』 권28, 세조 8년 4월 18일 기사).

로서 東班의 列에 들어있는 곳인데, 良人과 賤人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은 매우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賤妾의 자손은 제외하고 良妾의 자손만을 허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명하여 여러 재상에게 의논하게 하셨습니다.⁸⁾

이상 예조에서 올린 문건에 따르면, 사역원에 입학한 양가자제 중에는 양첩의 자손과 천첩의 자손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서 입학이 허용된 천첩의 자손은 2품 이상 고관의 천첩 자제들에게만 허용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사역원에 입학하는 생도의 신분은 결코 낮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상 예조의 건의에서 보듯, 사역원이 외국의 말을 통역하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천첩의 자손들이 입학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의견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설사 그들이 고관의 자제일지라도 천첩의 소생이라면 배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조의 의견이 수용되어 천첩의 자손은 사역원 입학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즉, 사역원에 입학하는 생도의 신분은 기존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았던 內需司·惠民署·圖書署·律學·算學보다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조선 통치자가 사역원에서 양성하는 역관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사역원의 입학 대상이 이와 같다면, 사역원에 입학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에 대해서는 역대 사역원 내력을 기술한 『通文館志』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응시자는 都提調에게 이력서와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후 도제조가 응시생의 이력서를 검인한 후 추천하면, 祿官이 해당 응시자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응시자의 시험 성적에 따라 입학 여부가 결정되었다.⁹⁾

응시자의 이력서에는 父親, 祖父, 曾祖父, 外祖父의 본관, 성명, 생년월일, 관직 여부 등 가족사항을 상세히 기록해야 했다. 가족사항에 대한 기록 이외에도 세명의 보증인도 기재해야 했는데, 여기서 보증인은 사역원의 관원인 教誨 1인과 參上官 2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도제조의 추천을 받으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8) 『성종실록』 권139, 성종 13년 3월 11일.

9)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通文館志』 권2, 『勤獎第二·入屬』, 1쪽.

祿官廳에서 15인의 祿官들이 응시자가 제출한 이력서를 심의하였다. 祿官들이 심사하는 주된 내용은 이력서에 기입된 응시자의 부, 모, 처 등 가족 관계에 대한 기록과 보증인의 신분이 규정에 적합한지를 살피는 것이었다. 녹관들은 이상 응시자의 이력서를 살핀 후 입학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응시자에게는 준비된 말린종이를 항아리에 넣어 표시하였다. 녹관의 심사 과정에서 불가 판정이 세 명 이상 나올 경우 해당 응시자는 입학이 거부되었고, 두 명 이하로 나와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응시생은 兼教授¹⁰⁾에게 試講을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응시생이 읽은 書目에 관한 것이었다. 사역원 생도로 합격한 응시생은 官府의 인장이 찍힌 입학통지서를 지참하여 學廳에 제출하면 입학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입학한 사역원의 생도들은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게 되었다. 먼저 1434년(세종 16)의 기사에 따르면, 사역원 생도의 본가가 외방(지방)에 있을 경우 생도를 대신해 정부가 본가에 거주하는 부모의 안위를 돌봐주었다. 또한 생도에게는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숙식은 물론 생활비까지 지급되었다.¹¹⁾ 이 밖에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역원의 생도는 군역의 의무가 면제되었다. 그리고 서울에 부모나 형제가 함께 거주하면 이들과의 부역의 의무가 면제되었다. 가족이 없는 생도에게는 별도의 봉록과 의복이 지급되었다. 이처럼 사역원의 생도는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역원의 생도가 되기 위해 노력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런데 성종 연간에 이르면, 조선은 사역원 생도의 동거인 중 부역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한 명으로 축소하였다. 그러자 사역원의 생도가 되기 위해 지망하는 응시생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1478년(성종 9) 禮曹에서

10) 사역원의 四學 중 漢學에만 教授(중6품 관직)가 있었는데 총 4명이었다. 이 중 2명은 겸교수로서 도제조의 추천을 거쳐 文臣 중에서 선발하였다. 나머지 두 명은 僉正이나 教誨 중에서 訓上堂上的 추천을 거쳐 도제조가 결정하였다.

11) 『세종실록』 권63, 세종 16년 1월 4일.

조서를 올려 집안에 장정이 세 명 이하인 경우에는 부역을 면제해 주고, 집안에 장정이 없는 경우에는 1명의 노비를 보내주도록 허락받아 다시금 생도의 유입을 촉진 시키고자 하였다.¹²⁾

이처럼 조선은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역관을 양성하기 위해 엄격한 입학 제도와 우대 정책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재정적인 문제로 우대 정책이 지속되지 못하면, 설사 생도가 된 자들도 외국어를 익힌 후 역관이 되기보다는 무역과 같은 더 큰 이윤을 쫓아 떠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즉, 조정의 재정적 지원 가능 여부가 역관 양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Ⅲ. 사역원의 중국어 교육 방법

1. 조기교육 실시

모국어 이외에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성년 이후에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기에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게 사실이다. 여러 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유년기에 배웠거나 다문화 가정과 같은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제2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유년기에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까닭에 현대 사회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유년기부터 외국어 환경에 노출시켜 교육하고 있다. 그런데 유년기부터 외국어를 교육하는 방법은 현대 사회의 외국어 교육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조선시대에도 이와 유사하게 장차 역관이 될 학생들을 유년기부터 교육하는 조기 교육이 행해졌다.

1394년(태조 3) 기사에 따르면, 사역원은 건립 초기부터 매년 각 道, 州, 府로부

12) 『성종실록』 권98, 성종 9년 11월 21일.

터 15세 이하의 자질이 뛰어난 자를 추천 받아 조기교육을 실시하였다.¹³⁾ 이같은 조기교육을 통해 실제 역관으로 성장한 사례가 바로 玄啓根이다. 현계근은 川寧 玄氏로 조선 중기 이후 역관을 가장 많이 배출시킨 집안이다. 그는 5세 때 사역원에 입학하였고 倭學의 역관이 되어 일생을 보냈다.¹⁴⁾ 이상 15세 이하라는 규정과 실제 사례를 미루어 볼 때 사역원에서 조기교육 선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연령의 하한선은 알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점은 조선시대에도 유창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기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시행해 왔다는 점이다. 특히 세종대왕은 명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 중국어 교육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조기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모름지기 나이 적고 총명하고 민첩한 자를 가리어 (사역원에) 입학시켜서 전심으로 학업을 닦게 해야 후일에 크게 쓰이게 될 것이다. 만약 글과 행실이 이미 성숙한 것만을 취하여 선택하고 나이 적은 것을 취하여 선택하지 않으면, 겨우 익히고 돌아와서는 곧 노쇠하게 되어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니, 사대부의 자제이거나 시골서 뽑아 올린 보통 백성이거나를 막론하고 나이가 적고 총명하며 민첩한 자를 선택하게 하라. (중략) 입학시킬 자제는 20명으로 정하여 급제한 생원부터 먼저 선택하게 하고, 북경으로 갈 때 뒷바라지해 줄 여러 가지 일과 본가를 돌봐주는 것은, 예조에게 승문원 제조와 함께 마련하여서 아뢰게 하라.”¹⁵⁾

이상 1433년(세종 15) 기사에 따르면, 세종은 사역원 생도 선발에 있어서 양반자제나 일반 양인을 막론하고 나이가 적은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도록 하였다. 이는 언어습득에 오랜 시간이 필요해 나이가 많은 자를 선발하면, 오래지 않아 노쇠해진다는 문제점 때문이었다. 이처럼 세종은 사역원 생도를 선발할 때 나이가 적은 자를 우선 선발해 조기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밖에 조기교육을 실시하는 어린 생

13) 『태조실록』 권6, 태조 3년 11월 19일.

14) 정광, 2014, 『조선시대의 외국어 교육』, 김영사, 87쪽, 410쪽.

15)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9월 17일.

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한편, 정확한 중국어 발음을 교육하기 위해 『增入諺文洪武正韻』을 교재로 삼도록 하였다.¹⁶⁾

2. 현지 체험학습

한중 양국은 전근대부터 줄곧 인적 물적 교류를 이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를 바탕으로 중국 현지에 집단 거주지가 만들어졌다. 가령 통일신라시대 산동지역에 설립된 신라소, 신라원, 신라방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신라와 고려는 자국의 인재를 중국(唐, 宋)에 파견하여 현지에서 유학하면서 중국어를 익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 관계는 중국의 명대까지 이어졌다. 1372년(홍무 5) 명 태조는 고려왕의 요청에 따라 고려의 학생들이 남경에 와서 수학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중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조선 건국 이후 1433년(세종 15)에 조선 조정은 홍무 5년의 선례를 바탕으로 조선 역시 인재를 명에 파견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주청하였다. 이때 조선은 기존에 허락된 남경은 한양과 거리가 멀어 왕래가 불편함으로 새롭게 명의 수도가 된 북경의 國子監이나 요동의 鄉學에 파견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하였다.¹⁷⁾ 이후 세종은 북경이나 요동으로 파견할 생도를 선발할 때 앞서 언급한 것처럼 15세 이하의 어린 생도를 선발하여 조기교육을 한 후 유학을 보내고자 하였다.

그런데 당시 파견된 사행단은 명 선덕제의 건강문제로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변수가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조선 관료들은 명의 허락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예상과 달리 명은 조선의 요청을 불허하였고, 세종의 조기교육과 현지 유학 계획은 무산되었다.¹⁸⁾ 이에 세종은 이들을 사역원에서 중국어를 학습하게 하는 한편, 다른 방법으로 이들이 현지에 가서 원어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北京使行이다.

16) 『세조실록』 권3, 세조 2년 4월 9일.

17)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9월 3일.

18) 『세조실록』 권3, 세조 2년 4월 9일.

주지하듯 조선은 건국 이래 명에 정기적으로 명의 수도에 사행단을 파견하였다. 사행단의 정관은 기본적으로 漢文을 이용해 필담으로 명나라 측 관리와 소통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필담을 하기 위해서는 종이와 먹을 항상 소지해야 했고, 대화의 내용이 증거로 남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¹⁹⁾ 따라서 사행단에는 명 관리들과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역관과 수행원들이 필요했다.²⁰⁾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세종은 예조의 요청에 따라 앞서 선발된 20명의 자제를 사역원에서 교육하는 한편, 명에 보내는 사행단에 종사관으로 임명해 함께 보낸 것이다.²¹⁾

이처럼 조선은 본래 명의 학교에 정식으로 유학생을 파견하려고 계획하였지만, 명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조선은 명에 보내는 정기적 사행단을 이용하여 사역원의 생도들을 명에 파견하였고, 이들은 현지에서 짧게나마 현지의 문화를 익히고 원어민과 소통하면서 중국어를 익힐 수 있었다. 이후 사역원에 속한 어린 학생 중 북경 사행단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역원에서 실시하는 書徒考講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가능하였다.²²⁾ 즉 현재 각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해외에 파견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조선 사역원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생도를 선발해 현지에 파견하는 사업을 시행한 것이다.

3. 발음교육 중시

중국어에는 한국어에 없는 성조가 있어, 중국인과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

19) 청대 관료들은 조선의 사신과 필담을 나누었지만, 필담의 내용이 때로는 민감한 것도 존재하여 이것이 유출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조선 관원 면전에서 종이를 삼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20) 역관들은 북경으로 가는 사행단에 포함되기 위해 사역원에서 실시하는 赴京取才에 응시해야 했다. 본 시험은 예조의 주관 하에 매년 봄과 여름에 두 차례 실시되었으며, 사역원의 원시에 합격한 자들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었다. 시험 과목과 방식은 『노걸대』와 『박통사』 등을 암송하는 배강 형태였고, 성적이 2分 이상이어야 赴京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21) 『세종실록』 권62, 세종 15년 12월 13일.

22) 『通文館志』에 따르면 사역원에서 書徒考講을 실시하여 衛職이나 赴京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본 시험은 1년에 네 차례 실시되었고 신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주로 강독한 책을 암송하는 것이었다. 이 중 연소자에 해당하는 年少聰敏者는 일반 敎誨보다 시험 범위와 분량이 절반으로 적었으며, 이들은 이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부경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해서는 항상 발음과 성조에 유의해야 한다. 즉, 한국인들이 중국어를 어렵게 생각하는 요인에서 한자라는 문자 이외에 성조 또한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조선시대 중국어를 배우는 조선인들도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대 중국어 교육에서 발음과 성조를 강조하는 것처럼 조선시대 중국어 교육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영어가 갖는 국제적 위상처럼 조선시대에는 중국어(漢語)의 구사가 상당히 중요하였다. 이에 역관의 임용 및 승진 과정에서 漢語를 구사하는 능력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었다.

먼저 역과 시험에서 漢學, 蒙學, 倭學, 女眞學 가운데 장원은 漢學 응시자 중에서 선발하였고, 나머지 학문분과는 점수에 따라 등수만 나열하였다.²³⁾ 다음으로 역관의 승진이나 면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국어를 배운 연차에 구애받지 않고 발음이 유창한 사람을 더 우위에 두도록 하였다.²⁴⁾ 즉 단순히 중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대 중국어 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정확한 성조를 사용해서 유창하게 발음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 개별 역관의 처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선 통치자 역시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대하였다.

行司直 張有華가 上言하기를 “臣은 司譯院에서 상근하는 堂上이 되었으나 根隨도 주지 않고 供饋도 주지 않으니, 金自貞·任士洪의 예에 따라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여 사역원에 물으라고 명하였다. 提調 儀議政 尹弼商이 와서 아뢰기를 “김자정·임사홍은 漢學을 잘하고 諸生을 勸督하여 그 일에 힘썼으므로 매우 가상하니, 신들은 근수와 공궤를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유화는 중국어를 잘하더라도 經學을 모르므로 제생이 수업하려 하지 않아서 마침내 이룬 공이 없으니, 주지 않더라도 괜찮겠습니다.”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중국어가 익숙하기로는 장유화 만한 자가 없으니 御前通事를 장유화가 아니고서 누가 하겠는가? 처음에 장유화를 시켜 가르친 것은 언어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배우는 자가 장유화를 천하게 여겨서

2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通文館志』 권2, 「勤獎第二·科擧」, 1쪽.

24) 『태조실록』 권6. 태조 3년 11월 19일.

수업하지 않으려는 것이 어찌 장유화의 죄이겠는가? 공귀와 근수를 品階에 따라서 주라.”라고 하였다.²⁵⁾

장유화는 사역원의 당상관이 된 이후 선례에 따라 자신에게도 시종과 음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영의정 윤필상은 그가 언어에는 능통하지만, 경학에는 밝지 않으니 타당하지 않다고 반대하였다. 윤필상은 장유화가 경학에 능통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시하였지만, 실상은 그의 신분이 낮은 점을 이유로 당상관에 준하는 대우가 온당치 않다고 여긴 것이다. 이에 대해 성종은 장유화의 중국어 실력을 높게 평가하여 그에게 당상관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주도록 명하였다. 이처럼 신분제가 엄격했던 조선시대에도 역관의 능력을 평가할 때 정확한 발음으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중국어를 배워서 역관이 되고자 하는 사역원의 생도들에게도 중국어 학습에서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4. 사역원 내 모국어 사용규제

외국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습득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현지 경험과 학습 과정에서 원어민과 유사한 발음을 구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같은 현대 사회의 외국어 교육 방법이 조선시대 사역원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이 놀라운 부분이다. 한편,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외국에서도 모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등 기존 모국어 위주의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사역원도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역원 내에서 모국어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해 일상에서 중국어를 보다 폭넓게 사용하도록 환경을 조성 하였다.

25) 『성종실록』 권230, 성종 20년 7월 26일.

사역원 도제조 申概 등이 아뢰기를, “(중략) 중국말을 힘써 숭상해서, 勸課하는 방법이 지극히 자세하고 주밀하나 중국말을 능히 통하는 자가 드물고 적으며, 비록 통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음이 역시 순수하지 못하므로, 중국의 사신이 왔을 때 御前에서 말을 전할 적당한 사람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중략) 중국에 가게 되면 듣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다 중국말뿐이므로 귀에 젖고 눈에 배어지기 때문입니다. (중략) 지금부터 본원의 錄官으로서 前銜權知나 生徒·講肄官 등은 중국말만 쓰기로 하며, 그 범주는 크게는 공무와 관련된 말에서 작게는 음식 먹는 것이나 起居하는 것까지 중국말만 쓰게 합니다. (중략) 우리말을 쓰는 자는 초범은 付過 처분하고, 재범은 次知 1명을 가두고, 삼범은 차지 2명, 사범은 3명을 가둡니다. 오범 이상은 형조에 공문을 移牒하여 論罪하게 하는데, 祿官이면 파직한 후 1년 이내에는 敍用하지 아니하며, 前銜權知는 1년 이내에는 取才에 응하지 못하게 하며, 생도는 그 범한 횟수에 따라 매를 때리도록 하소서. (중략)”라고 하니, 그대로 따르게 하였다.²⁶⁾

이상 신개의 보고는 외국어를 공부할 때 느끼는 문제점이 조선시대와 현대 사회가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현실적으로 중국에 직접 가서 수학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자가 많지 않았고, 그 기간 또한 짧았기 때문에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역관을 양성하기 어려웠다. 또한 수업 시간 이외에는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아 오랜 기간 배웠음에도 중국 사신과 대면해서 소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신개는 사역원 내에서는 중국어만을 사용해 소통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어겼을 경우 신분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 받도록 하였다. 이는 사역원 관원 및 생도들에게 중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었다.

5. 회화전문교실 창설-偶語廳

사역원의 설립 목적은 역학교육을 통한 역관 양성이다.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

26) 『세종실록』 권95, 세종 24년 2월 14일.

하기 위해서는 앞서 경학과 같은 경서의 암송보다는 일상적 대화를 중심으로 한 회화연습이 필요했다. 이에 1682년(숙종 8) 조선 조정은 사역원에서 회화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偶語廳을 설립하고, 鄭先甲과 文可尙을 訓長으로 임명하였다. 鄭先甲은 崇禎 연간 과거에 합격한 후 淸軍에 잡혀 盛京으로 압송되었다가 조선으로 표류한 漢人이다. 그리고 文可尙 역시 조선에 표류한 漢人으로 그는 병자호란 중에 조선에 표류하였다.²⁷⁾ 조선 조정은 두 표류민을 기용해 사역원의 역관과 생도들에게 회화연습을 시키는 한편, 이곳에서 회화 시험도 치르게 하였다. 사실 명나라 표류민인 문가상과 정선갑은 우어청의 훈장으로 임명되기 전인 숙종 3년에 이미 조정으로부터 군직과 급료를 받으면서 사역원의 역관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였다.²⁸⁾

이처럼 조선 조정은 사역원의 역관과 생도들의 회화 실력 향상을 위해 조선으로 표류한 명나라 출신 표류민까지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원어민을 활용한 회화교육은 역관과 생도들의 회화 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²⁹⁾

6. 문화교육

언어는 단순한 기술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와 사람을 아우르는 문화를 배우는 길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언어는 그 사회의 문화 변화에 맞춰 함께 변화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양자를 떼어놓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현대 외국어 교육에서도 일상용어를 배우는 텍스트 속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담아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한다. 조선의 사역원 역시 원어민을 채용하여 회화를 강습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경서를 함께 강독하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7) 유춘난, 1997, 『明·淸交替期 漢族의 朝鮮移民』,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석사학위논문, 59-63쪽.

28) 『숙종실록』 권6, 숙종 3년 3월 22일.

29)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집부, 1998, 『通文館誌』 권1, 「沿革·等第」, 5쪽.

사역원에서 사용한 중국어 교재를 살펴보면, 언어교육 교재로 『老乞大』, 『朴通事』, 『五倫全備』, 『小學』 등이 있다. 역관들의 문화적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한 경전류에는 『孟子』, 『中庸』, 『大學』, 『論語』, 『書傳』, 『詩傳』, 『大明律直解』, 『翻譯經國大典』 등이 있다. 또한 역사를 교육하기 위한 사서류에는 『通監』 등이 활용되었다.³⁰⁾ 역관들이 取材시험에서 읽어야 할 書目을 살펴보면, 중국어 교재는 『直解小學』 정도가 추가되어 대등소이하였다. 그러나 문화적 소양을 살피는 경전류에는 『詩經』, 『魯齋大學』, 『直解大學』, 『尚書』, 『孝經』 등을 추가로 강독해야 했다. 이밖에 사서류는 더욱 크게 증가해 『古今通略』, 『前·後漢』, 『少微通監』 등을 강독해야 했다. 즉 이상 사역원의 교육 교재와 강독 목록을 살펴보면, 사역원의 역관 양성은 단순히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음이 분명하였다.

특히 이상 사역원에서 강독하게 한 書目에서 보듯, 사역원의 역관들에게 유학의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중요한 덕목이자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중국이 유학의 본산이라는 점과 중국 측 사신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교 경전과 역사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그들의 말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³¹⁾

다만 이상 유학과 역사교육은 앞서 회화교육에서 원어민을 증용한 것과 달리 조선인을 훈도로 삼았다. 이는 경전의 내용이 난해하여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중국어로 설명하면 학생들이 제대로 습득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선은 훈도관을 설립하고 이 훈도로 하여금 중국어와 조선어로 경학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였다.³²⁾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通文館誌』 권2, 「勤獎第二·科擧」, 1쪽, 5쪽.

31) 『태종실록』 권8, 태종 4년 8월 20일.

32) 『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 6월 8일.

IV. 사역원의 역관 관리 방안

1. 출근(출석)관리 제도 시행

훌륭한 역관을 양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역관과 생도들의 성실한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외국어는 오랜 기간 꾸준한 학습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역원에서도 역관과 생도들에게 엄격한 출근(출석)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출근(출석)점수를 바탕으로 과거응시 자격, 取材, 승직 및 상벌 등의 각종 평가 점수에 반영하였다. 가령 역관의 取材에서 출근시간은 중요한 평가 항목 중 하나였다. 取材 항목 중 衛職取才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본 시험에서 성적을 평가하는 항목에 次考試 성적, 院試 점수와 더불어 출근시간이 포함되었다. 이밖에 사역원의 출근시간에 따른 점수는 북경 사행단에 선발되는 것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평가 지표였다.³³⁾

사역원의 출근(출석)제도가 중요한 평가 지표로 활용됨에 따라 이를 기록하는 것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였다. 역관과 생도의 출근(출석)을 기록하는 방법은 성균관에서 사용하는 원점법을 사용해 적용하였다. 원점법은 아침과 저녁식사 시간에 식당에 도착한 후 원점을 찍어 기록하는 방식을 의미한다.³⁴⁾ 역관과 생도가 하루의 출근(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침과 저녁 두 번 다 식당에 와서 원점을 찍어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출석이 50번 이상이 되어야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³⁵⁾ 사역원도 이 같은 성균관의 규정을 적용해 실시하였고, 조기교육을 위해 선발한 어린 생도(年少聰敏者)들도 위와 같은 출근(출석) 조건을 충족해야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³⁶⁾

33) 『성종실록』 권10, 성종 2년 5월 25일.

34) 『성종실록』 권210, 성종 18년 12월 6일.

35) 『영조실록』 권52, 영조 16년 7월 8일.

36) 『중종실록』 권84, 중종 32년 4월 25일.

2. 누계식 성적제도

사역원은 엄격한 출근(출석) 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누계식 성적평가 제도를 시행하여 역관과 생도들이 학업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역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은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점수를 누계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그리고 누계되어 산출된 평가점수는 앞서 출근점수와 합산해 역관과 생도들의 과거, 승직, 취재, 부경, 상별자 선정에 활용되었다. 따라서 사역원에서 실시하는 院試, 書徒考講, 二六考講, 祿取才, 赴京取才, 衛職取才 등이 각각 별개의 평가가 아닌, 서로 연결되어 이전 시험이 후에 열리는 시험 성적에 합산되는 형태였다.

가령 예비시험적인 院試는 역관의 각종 임차 및 승진에 관련된 시험이었다. 원시에 합격하면 그다음 시험인 취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응시생은 원시에서 1分半 이상을 취득해야 취재에 응시할 수 있었고, 취재에서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 원시 성적을 기준으로 등수를 매기게 되었다.

다음으로 祿取才의 경우 두 번의 院試를 통과해야 했고 원시 성적이 3分 이상이 되어야 祿取才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최종 임용에서 먼저 取才 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나열한 후 다음으로 원시의 누계점수 그리고 응시생의 출근점수를 합산하였다. 즉 한 차례의 시험이 아닌, 여러 차례 실시한 시험의 누적된 점수를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사역원의 평가제도는 엄격하면서도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한편, 사역원에서는 각 시험의 점수를 누계하여 평가하는 동시에 성적에 따라 역관과 생도에게 상벌을 내리기도 하였다. 먼저 학업에 전념하여 게으름 피우지 않고 학습 성적이 우수한 자는 품계를 올려 포상하였다. 반면, 학업에 전념하지 않아 학습 효과가 없는 자는 매년 한 차례씩 평가해 한 차례 성적이 나쁘면 1등 강등시키고 두 번은 2등, 세 번은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였다.³⁷⁾

37) 『세종실록』 권97, 세종 24년 8월 1일.

3. 상벌제도 시행

사역원은 역관과 생도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출근(출석)과 시험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 보다 직접적인 동기 부여 방법으로 상벌제도를 시행하였다. 사역원의 상벌제도는 본원의 설립 초기부터 시행되었다. 먼저 설립 초기 사역원의 교수 정원은 3명이었고, 이중 2명이 漢學에 나머지 1명이 蒙學을 담당하였다. 생도들은 한학과 몽학에 각각 배속된 후 3년간 수학하고 누계된 성적을 바탕으로 상벌을 받았다. 그리고 교수자 또한 교육에 대한 책임으로 상벌 대상에 포함되었다.

생도들은 평가를 거쳐 사역원에서 3년간 수학했지만, 한어나 몽골어가 늘지 않을 경우 생도의 자격을 박탈하고 군역에 충당하는 처분을 받았다.³⁸⁾ 이후 세종 16년 기사에 따르면, 생도의 교학에 힘쓴 교수자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특별 승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즉, 사역원의 상벌제도는 태조 때부터 시행되어 세종대에 이르러 좀 더 구체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³⁹⁾ 이후 예종 대에 이르면 역관과 생도들의 출근과 학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월강을 실시하였다. 월강에서 낙방한 역관과 생도들은 家童을 대신 가두는 등 강력한 처벌을 실시해 보다 근면한 태도로 수업에 임하도록 하였다.⁴⁰⁾

한편, 사역원의 중국어 교육 방법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학습 방법에 맞춰 상벌제도 또한 변화하였다. 가령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역원 내 중국어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역관과 생도들에게 원내에서 모국어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사역원에서는 녹관에서 생도에 이르기까지 수업이나 공적인 업무에서는 물론이고 식사와 같은 일상적인 부분에까지 중국어를 사용해 소통해야 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위반하면 상술한 것처럼 신분제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이상 사역원에서 실시한 역관과 생도에 대한 관리 방안을 종합해 살펴보면, 역관과 생도의 출근(출석)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기록했으며, 정기적인 시험을 통해

38) 『태조실록』 권6, 태조 3년 11월 19일.

39) 『세종실록』 권63, 세종 16년 2월 25일.

40) 『예종실록』 권4, 예종 1년 3월 20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른 상벌로 이어지는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방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졌다. 이는 사역원의 업무가 조선의 외교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역관을 양성한다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V. 나가며

본고는 조선의 對中國(明·淸) 외교에서 중요한 가교역할을 한 역관의 양성과 교육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사역원이라는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역관을 양성하였다. 사역원에는 漢學, 蒙學, 倭學, 女眞學(淸學) 등 네 가지 학문 분과가 존재 하였지만,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對中(淸) 외교에 필요한 漢學이었다. 따라서 조선 조정은 사역원의 생도를 선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생도와 역관에 대한 중국어 교육 방법, 이들이 성실하게 수학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방안, 그리고 누적된 결과에 따른 상벌제도까지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해 시행하였다.

먼저 사역원에 입학할 수 있는 생도의 신분은 士族 중 일반 양인 이상의 신분만 가능하였다. 또한 양반 자제 중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 되어야 입학할 수 있었다. 입학 후 생도에 대한 처우 또한 상당히 높았는데 사역원 원내 시험을 통과하면 역관에 응시하여 역관이 될 수 있었고, 관료가 되기 전인 생도들에게도 사역원에서 수학하는 동안 주거, 식사, 생활비가 지급되었다. 또한 생도들에게 수행 노비와 군역 면제라는 특권도 부여되었다. 이 밖에 서울에서 생도와 동거하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에게까지 부역을 면제해주는 특권이 제공되었다.

다음으로 교육 방법에서 사역원의 중국어 교육은 현대 외국어 교육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가령 사역원은 15세 이하의 어린 자제들을 선발해 조기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명(淸)에 사행단을 파견할 때 생도들을 수행 인원에 포함시켜 이들이 현지에서 원어민과 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회화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회화반을 구성하는 한편, 이곳에 원어민을 훈도로 삼아 교육하게

하였다. 또한, 사역원은 역관과 생도의 중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원내에서 모국어 사용을 금지하였다. 끝으로 사역원의 중국어 교육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역관 양성 과정에서 언어적 능력에만 중시하는 것이 아닌, 중국의 유교 문화와 역사에 대한 소양을 쌓는 것도 중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對中 외교에서 상대국 사신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상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우대정책의 실시에도 사역원의 역관과 생도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규제가 없으면 사상누각이 되기 십상이다. 이에 조선 조정은 엄격한 출근(출석) 관리, 누계식 성적제도, 평가 결과에 따른 상벌제도를 시행해 역관과 생도에 대한 기강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물론, 이상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역원의 역관 양성 프로그램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조정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점차 혜택이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사역원 생도와 역관의 수급이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조선은 지속적인 관리 방안 개정과 역관 및 생도의 처우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가령 사역원의 역관은 여타 다른 技術科와 달리 생도의 신분이 높았고, 譯科를 거쳐 높은 品階로의 승진도 가능했다.

참고문헌

1. 사료

국사편찬위원회 편, 1958,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通文館志(1-4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 국내연구서

백옥경, 2002, 「조선 전기 역관의 직제에 대한 고찰」, 『이화사학연구』 29
고광일, 2007, 『朝鮮時代 中國語 教育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양수, 1999, 「朝鮮後期 譯官 집안의 연구: 玄德潤·玄采 등 川寧玄氏家系를 중심으로」, 『人文科學論集』 19
李建衡, 1980, 「朝鮮王朝의 譯學教育」, 『論文輯』 16
임동석, 1989, 「朝鮮時代 外國語 教育에 對한 一考」, 『學術志』 33
유춘난, 1997, 『明·清交替期 漢族의 朝鮮移民』,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석사학위논문
정광·양오진, 2005, 「朝鮮時代의 中國語 教育과 그 評價-朝鮮 英祖 46년(1770), 47년(1771)에 施行한 譯科漢學 初試, 覆試, 試券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9
정광, 2014, 『조선시대의 외국어 교육』, 김영사
정승혜, 2000, 『司譯院 漢學書의 基礎研究』, 藏書閣

3. 국외연구서

金基石, 2004, 「韓國漢語教育史論綱」, 『東疆學刊』 21
金基石, 2005, 「韓國李朝時期的漢語教育及其特點」, 『漢語學習』 5
樸京淑, 2000, 『試論韓國朝鮮時代的漢語教學』, 北京語言大學 석사학위논문
烏雲高娃在, 2003, 「14-18世紀東亞大陸的“譯學”機構」, 『黑龍江民族叢刊』 3

투고일: 2025년 03월 30일 심사완료일: 2025년 04월 14일 게재확정일: 2025년 04월 14일

■ Abstract ■

Chinese Language Instruction and the Training of Interpreters at the *Sa-yeok-won* for Diplomatic Relations with Ming and Qing China

Kim, Jun-Young(Wonkwang University)

Chinese language educat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developed into a relatively comprehensive system encompassing educational institutions, administrative oversight, teaching methodologies, interpreter training, and textbook compilation. Accordingly, research on Chinese language training in this period provides not only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its historical practices but also valuable reference materials for modern foreign language educ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operations and educational practices of the *Sa-yeok-won* (司譯院), a government bureau during the Joseon Dynasty,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student recruitment, instructional methods, and measures for managing interpreters. Students at the institution began their training at a young age and were taught through real-world immersion. They were required to master accurate Chinese pronunciation under strict language policies that banned the use of Korean. To further strengthen their speaking abilities, the *U-eo-cheong* (偶語廳), a specialized conversation course, was the bureau cultivated cultural learning—including Confucian studies and history—aimed at developing the cultural competence of diplomatic interpreters.

Management practices for students and interpreters included attendance monitoring (*wonjeom* system), cumulative grading, and a structured reward-and-penalty framework. Over its 500-year history, the *Sa-yeok-won* trained a steady stream of interpreters and played a vital role in promoting diplomatic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Joseon and China. The bureau's strategies present striking parallels with modern foreign language education, offering valuable reference materials for future educational development.

Key words: *Sa-yeok-won*, Chinese language training, diplomatic interpreter training, government interpreter system, Joseon-China diplomatic relations